

## 추억의 합격기

[1992년도 제26회 외무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 ‘Escape from Freedom’으로부터의 탈출



강석희

### 『학력사항』

- 경북 상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경력사항』

- 현) 주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겸 주아프리카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위원지원국 국장
-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 주 나고야 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 외교통상부 인사기획담당관실
- 1992년도 제26회 외무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 I. 글을 시작하며

외무고시에 최종합격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해방감에 젖어서 지난 수험생활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는 지금, 별로 모범스럽지 못한 나의 수험생활을 드러내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글을 써 본다.

1년 반 정도의 자유스러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1년 반 정도 외무고시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비친 고시 생활은 ‘Escape from Freedom’이었다. 고시 생활은 자유롭고 변화하고 다원화된 삶이 아니라, 조직화되고 단조롭고 일원화된 삶이다. 1차시험 합격이라는 사슬이 채워지면 더욱 더 깊이 Escape from Freedom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일단 이 세계에 들어와서 원하는 목표를 쟁취하고 탈출하려면, 역설적이지만 Escape from Freedom의 세계에 최대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즉 자유를 억제하고 자기 규율·자기통제를 통한 자유이 그것이다.

## II. 제1차시험

외무고시에 뜻을 두고서도, 언제부터

공부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다가 1990년 가을에 1991년 제25회 외무고시 1차를 염두에 두고 1차에 관한 책을 보기 시작했다. 고시잡지를 보아도 1차에 관한 상세한 안내가 나와 있지 않아서 각 과목별로 가장 많이 읽고 있다고 생각되는 책을 한 권씩 사서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 반 동안 누적된 게으름으로 인하여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못 했다. 1990년 가을에는 Freedom의 세계와 Escape from Freedom의 세계의 경계에 서서 오락가락한 것 같다.

그때에 헌법은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을 보고, 정치학은 이극찬 저 정치학을 읽었는데, 정치학은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접해보는 내용이 많았다. 아마도 1학년과 2학년 때에 전혀 책에 손을 대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 같다.

영어는 이재옥 Toefl을 주의 깊게 천천히 읽어 갔으며, 한국사는 이기백 저 한국사신론을 문화사는 조좌호 저 세계문화사를 보았는데, 문화사 공부는 재미있었지만, 이재옥 Toefl은 힘들게 읽어갔다.

처음에 1차에 관한 책들을 보았을 때, 한자투성이의 두꺼운 책의 무게에 굉장히 큰 중압감을 느낀 기억이 난다.

여하튼, 1991년 1월에 있을 1차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으로서의 겁 없이 게으름을 피우며 공부하다가, 1990년 12월 초 겨울 방학이 시작되었을 때에 각 과목당 기본서 1회독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그래서 1차시험 합격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서도 성실하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리라 마음먹고, 방학 동안 학교 도서관에 나가지 않고 집 근처 독서실에 다니기로 했다. 학교까지는 1시간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12월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하여 집중적인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결국 1991년 1월 초 1차시험이 1월 25일에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서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촌각을 다투어 공부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진도로 보아서는 잘해 보아야 시험일까지 각 과목당 기본서 1회독 문제집 1회독에 그칠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일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다짐을 하고 촌각을 다투어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다. 나의 게으름은 아마 그때에서야 극복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시험일까지 한국사 신론 2회독 외에는 각 과목당 기본서 문제집 각각 1회독에 그치고 말았다. 적은 회독수로 아니 최소 회독수로 인하여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으로 1월 25일 제25회 외무고시 1차 시험은 큰 욕심 없이 담담하게 치렀다.

결과는 평균 84점으로 커트라인 82점을 2점 앞서는 점수로 합격이었다. 1회독만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철저한 정독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문제집을 볼 때에도 항상 문제 하나하나를 재확인하였으며 의심이 나는 문제는 항상 기본서를 참고하곤 하였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헌법은 권영성·민경식 공저 문제집을 보았는데, 권영성 헌법학원론과 같이 보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헌법조목을 눈여겨 보아두었다 (85점).

정치학은 서울대학교 8인 공저를 참고서로 보았는데 이극찬 책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 문제집으로서는 부민문화사의 정치학개론과 이철형 문제집을 보았는데 제25회 외시에서와 같이 시사에 관한 것도 많이 출제되고 정치학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신문이나 시사상식집을 통한 풍부한 상식이 필요할 것 같다 (82.5점).

영어는 이재옥 Toefl을 본 후 Vocabulary 22,000을 보았으며 이재옥 저 객관식 영어연구를 보았다. 풍부한 어휘실력이 중요하다 (82.5점).

한국사는 문수홍 문제집을 보았으며 강만길 저 한국근대사를 참고서로 보았다 (85점).

문화사는 조좌호·김창수 공저 문제집을 보았는데, 중국사에 관한 책을 한번 보아두면 좋을 듯하다(85점).

### Ⅲ. 제2차시험

1991년 2월 12일 1차시험 합격을 확인하였을 때 잠시 동안의 기쁨 후, 곧 2차시험에 대한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1차시험에 합격했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들 하는데, 나의 1차 합격의 기쁨은 2차에 대한 걱정으로 매장되어 버렸다.

고등학교 독어 문법책 한 번 본 것, 조순·정운찬 공저 경제학원론을 이해 못하면서 한 번 본 것이 그때 2차시험 과목에 대하여 내가 접촉한 전부였다. 1991년 2월에 있는 제25회 외무고시 2차시험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마지막 날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다. 부끄럽지만

제25회 2차시험의 성적을 나열해 보면, 평균 37.80, 국민윤리 45.66, 영어 45.33, 국제법 43.33, 경제학 35.66, 국제정치학 38.66, 독어 22.66, 행정학 33.33이었다.

3월과 4월을 1년 공부로 2차 합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큰 의심을 갖고서 맥없이 보냈다. 선배와의 만남, 나 자신에 대한 질책으로 이러한 의심은 어느 정도 희석되었지만, 최종합격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그 의심은 줄곧 나를 따라다녔다.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외국어의 거의 무방비 상태, 철옹성 같은 경제학의 장벽에 대항하여 허술한 기초조차 갖추지 않은 경제학실력, 안개속의 국제정치학, 2차 시험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참담한 상황은 나에게 현기증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5월이 되자 2차 합격에 대한 의심도 어느 정도 짓누를 수 있게 되고, 2차 준비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어서, 3·4월의 방황을 끝마치고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영어는 이재옥, 고급 영작문 연구를 차근차근 보았는데 어렵고 긴 문장들을 차례차례 영어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독어는 어휘실력의 절대부족을 느껴 어휘책을 보면서 초급독문해석, 중급독문해석을 차례로 보아 나갔으며 학원에 다녔다. 독어와 영어는 매일 미루지 않고 공부했다.

경제학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3인 공저 원론을 보았는데 내용이 풍부하고 연습문제를 통한 확인학습으로 경제학에 대한 충실한 개관을 할 수 있었다. 원론의 양이 많아서 이준구 미시는 5월 말에서야 볼 수 있었다. 독어, 영어, 경제학 순으로

많은 시간을 할당했는데, 이 순서는 여름까지 유지되었다.

국제법은 2인 공저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학교강의를 들었다. 국제정치학은 오기평 외교사를 읽으면서 이와 병행하여 박상식, 이상우, 박경서 책들을 차례로 읽어나갔다. 국제사법이 분량이 적다고 해서 선택과목을 행정학에서 국제사법으로 바꾸고 서희원 책을 조금씩 읽어 나갔다. 나에게서는 만만한 과목이 하나도 없어서 집중적으로 몇 개의 과목에 투자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국민윤리를 제외한 여섯 과목을 모두 조금씩 해 나갔다.

여름방학이 되자 공부장소를 학교 도서관에서 집으로 옮기고, 학원에서 미시·거시·국제경제학 강의를 들었다. 여름방학 동안에 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경제학에 대한 윤곽을 잡기 시작했고 독어는 종합독문해석을 통해 독해공부를 본 궤도에 올리고 독작문 연습을 병행했다. Korea Herald의 Editorial을 1주일에 이틀 치 정보 스크랩해서 해석과 작문을 번갈아 함으로써 영작실력을 쌓아나갔으며 국제법은 유병화 책을 보기 시작했다. 국제정치학은 여러 권의 책을 볼 필요가 있었으므로 비교적 빨리 읽었으며 국제사법은 꾸준히 조금씩 공부해 나갔다. 여름방학 동안 Escape from Freedom의 세계에 익숙해져서, 다가올 가을의 촉박한 시간에 대비할 수 있었다.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한 달마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는데,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저녁을 절대휴식시간으로 못 박아 두었으며, 계획 실천여부의 점검을 통하여 성찰과 나 자신에 대한 채찍질을 가했다. 지난달의 계획 실천정도와 이번 달의 계획 실천정도를 비교해 봄으로

써, 한 달 동안의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었고, 반성과 나에 대한 질책으로 고시 생활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매너리즘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

2학기가 시작되자 같은 과 선배형님들과 스터디를 시작했다. 서로 공부방법과 읽은 책이 조금씩 다르므로 스터디를 통해서 각 과목별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정보교환도 할 수 있었다. 고시공부라는 측면 외에도 스터디는 고시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활력소를 제공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했는데, 스터디를 마치고 저녁 때 회식을 하면서 함께한 즐거운 웃음이 기억에 남는다.

2학기에는 1학기 때 실력부족으로 듣지 못했던 국제무역론, 국제수지론 강의를 들었다. 그밖에 거시경제론과 국제법 강의도 들었는데 모두 유익했다.

11월이 되어 경제학 2회독을 마치고 국제법도 유병화 저 국제법Ⅱ까지 다 읽고, 국제정치학의 중요 기본서들을 어느 정도 읽었는데, 2차 시험날짜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와서 정리를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경제학은 미시/거시 국제경제학 기본서를 2회독하고 원론을 한번 읽었을 뿐, 참고서는 단 한 권도 읽지를 못했으므로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으로 인하여 새로운 책을 읽는 욕심은 부리지 않기로 하고, 미시경제학부터 기본서를 꼼꼼히 요약해 나갔다. 많은 책을 읽지 못한 대신 기본서 내용만은 잘 정리해 두자는 생각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했다. 기본서를 정리하면서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갔다. 국제법은 2인 공저를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유병화의 책의 일부 내용

도 정리했다. 난감한 것은 국제정치학이었는데, 확실한 기본서도 없거니와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니 1회독 밖에 못한 상태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서 몇 권을 정리하고 이철형 저 문제집 그리고 고시잡지에 나온 예상문제를 보았다. 외교사는 오기평 저 세계외교사를 중심으로 한국 외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박준규 책을 참고해서 정리했다.

겨울방학이 되어 학교강의가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많아짐과 동시에 시험 날짜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 때부터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는데, 12월 한 달 동안은 좀 답답했지만, 1월이 되어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고 시험일이 정해짐에 따라 하루 종일 집안에 있음으로 인한 답답함은 시간부족으로 인한 답답함으로 바뀌었다. 논문과목에 대한 정리가 더디어지자 11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어학과목에 할당된 시간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1월 중순 쯤 경제학, 국제법, 외교사의 정리를 마쳤는데, 시간부족으로 국제정치학은 불완전한 정리로 매듭지어 버렸다. 시험을 40여일 앞두고서 정리해 둔 요약노트 암기에 돌입했다. 우선 처음 볼 때에는 미시적으로 암기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때에는 거시적으로 암기하려 했으나 시간부족으로 암기까지는 못하고 한번 읽어 보는 정도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불충분한 암기였으나, 제한된 시간 내에 체계 있게 답안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국제정치학의 경우 요약노트 외에도 이철형 저 문제집과 고시잡지의 예상문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눈여겨보았다. 영어의 경우 Korea Herald지의 사실과 Time지에서 스크랩해 놓은 것을 다시 한 번 보았다. 독어는 종합독문

해석과 작문책을 부분적으로 다시 보았으며, 국제사법의 경우 정리를 미처 못 했기 때문에 목차와 줄친 부분을 암기했는데, 법과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조문도 함께 암기하였으며 생소한 법률용어를 암기하느라고 고생한 기억이 난다. 한 겨울을 그렇게 답답한 집안에서 혼자 지내면서 절박한 시간에 쫓기어 나에 대한 스스로의 명령·통제·속박은 절정에 달하여 몸과 마음에 조금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았다. 아주 깊은 Escape from Freedom에 빠져든 것 같았다.

2차시험일에는 만약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고자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나흘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각하게 시험을 치렀다. 마지막 날 시험을 끝낸 후 시험장을 나오면서 당락여부에 대한 생각보다 이제 내일부터는 적어도 당분간 어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해방감이 앞섰다. 그러나 그 해방감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2차시험을 마친 후 오랜만에 무계획의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지극히 불편했다. 즉 몸은 Freedom의 세계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깊은 Escape from Freedom의 세계에 있었다. 불합격의 악몽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자, 아예 머리를 비워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냈다.

2차시험 합격의 소식을 접했을 때의 기쁨은 전율에 가까운 것이었고, 이 미완성의 기쁨은 3차시험(면접시험) 합격 때의 잔잔하게 다가오는 기쁨으로 완성되었다.

3차시험(면접시험)은 정부종합청사에서 보



았는데, 오전에는 개별면접을 보고 오후에는 집단토론을 하였다. 부담스러운 질문이 많아서 마지막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부활절 주일 나는 'Escape from Freedom'으로부터 탈출하여 다시 Freedom의 세계로 돌아왔다. 총무처장관 명의의 합격증서와 함께.

#### IV. 몇 가지 제언

국민윤리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다른 과목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2회독도 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친 데 기인한 것 같다. 국민윤리와 관련 있는 주변학문의 지식을 활용하여 답안내용을 풍부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53점).

영어는 영작에서는 영어다운 표현을 구사해야 하고, 우리말 해석에서는 우리말답게 해석하여야 한다. Korea Herald 같은 영자 신문을 통해 살아있는 영어를 접해 봄으로써, 감각을 익히고 외국인의 사고에 기초한(한국인의 사고에 기초한 것이 아닌) 영어표현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제 26회에서와 같이 분량이 많을 경우에 대비해서 빨리 작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우리말로 된 긴 문장을 짧은 영어문장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Korea Herald의 Editorial을 해석하고 다시 영작해 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외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67.66점).

국제법은 전범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제

가 가능하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법과목인만큼 책에 있는 내용을 요령 있게 잘 정리해서, 체계 있고 질서 있는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각 Case가 무엇이 쟁점이었는지를 알아 두고 이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주면 입체적인 답안 구성을 할 수 있다(72점).

경제학은 해야 할 분량이 무척 많은데다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사람을 무척 피곤하게 하는 과목이다. 학교강의와 학원 강의를 많이 들음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를 하여야 하겠고 원론을 통한 경제학의 전반적인 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사적인 내용과 결부시켜서 그래프를 가지고 응용시키는 문제도 출제가능하고 구석진 곳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해 두어야 한다. 강의를 통한 이해의 기초위에 기본서의 철저한 정리를 통하여 이해를 발전시켜 나간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63.33점).

국제정치학은 그 범위가 모호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만큼 범위가 넓다. 가능한 한 여러 권의 책을 읽어 둘 필요가 있으며 신문의 국제면을 읽고 국제정세의 흐름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외교사의 경우 각 사건의 역사적 배경·의의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독을 통해 폭 넓은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좋으며 여러 책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주요 기출문제는 비교적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64점).

독어는 외국어과목인만큼 역시 꾸준히 많은 시간을 투자라는 것이 좋다.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서 좋은 성

적을 거둘 수 없었다. 2차시험에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너무 성급하게 작문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58점).

국제사법은 분량이 적어서 제대로 정리를 안 해두다가 시간에 쫓기면서 생소한 법률용어를 암기하느라 고생했다. 시간부족으로 목차와 줄친 부분 조문만을 암기했는데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미리미리 암기해 두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적은 분량이지만, 생소한 법률용어, 조금 복잡한 내용으로 외우기가 쉽지 않으므로 미리 철저하게 암기해 둬으로써 시험에 임박해서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76.66점).

고시공부는 학문을 위한 공부라 아니고 시험을 위한 공부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험시간인 두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답안화되지 못하는 지식은 의미가 없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산만하게 흐트러서는 안 된다. 시험일이 가까워지면, 그 동안 쌓아두었던 지식을 잘 이해력의 기초위에서 체계 있게 잘 정리해서, 시험일에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그 지식을 답안지에 표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서의 내용을 모두 기억해서 짧은 시간에 답안지에 표출시킬 수는 없으므로 기본서 내용의 뼈대를 잡아서

그 뼈대를 암기하면 이해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 뼈대에 살을 붙일 수 있다. 이해력의 바탕을 쌓기 위해서는 기본서의 구성구석을 주의 깊게 정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고 스스로 자신을 규율하여서, 선수와 코치의 1인 2역을 하여야 한다. 휴식과 공부는 상충관계가 아니고 상호보완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휴식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시험이 다 그러하듯이 외우고시도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따른다.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하면서,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V. 글을 맺으며

돌이켜 보니 짧은 수험생활이었지만 어둡고 힘겨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 외에도 외시 준비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으니 한편으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함께 스터디 하면서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셨던 창수형, 도연형, 찬호형, 구형에게 감사드린다.